

“성주, 사드 배치 땀 中 핵미사일 타격목표”

중국 군사전문가 위협

사드 놓고 한미 vs 중 대립 격화

미국, 조기 대선 이전 배치 의지

국방부, 남은 절차 동시에 진행

중국 인사들과 관영 매체들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협박의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안보 당국은 1일 잇단 전화통화를 하고 사드를 조기에 배치한다는 데 공감. 중국 측반응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 대 한미 간의 ‘대립구도’가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넷에서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일단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성주는 중국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개인 의견일망정 중국 정부가 그간

밝혀온 입장과 한참 엇나간 발언이다. 이 신문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이다. 관영 매체를 통해 이런 격한 발언이 나온 것은 중국 조야의 반응을 우회적으로 말해준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는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상품 불매 촉구에 나서면서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못대는 물론 삼성과 현대도 그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위협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경왕(敬王)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은 “(부지 제공) 결정은 중국 관광객들에 면세점 매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롯데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의 반발 강도가 한층 격화되는 가운데 한미 안보 당국은 이날 잇단 전화통화에서 사드 조기배치 의지로 맞불을 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전화통화에서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한

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로 배치를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시설공사와 장비 전개 등 사드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미국 국방당국자가 ‘조속한 작전운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 조기에 사드 포대를 전개해 조기에 작전운용을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드부지 교환 계약 이후 일정을 보면 5~7월 중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 국방 당국이 워낙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배치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배치까지 남은 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이지만, 동시에 여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미는 부지공여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

본설계도 병행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 현재 서류작업 등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기를 대략 5~6월께로 내다보고 있다.

성주골프장은 총 148만㎡지만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이하의 부지만 미군에 공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는 주민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 주민의 반대가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영향평가만 마무리되면 부대시설이 다 들어서기 전이라도 사드 포대만 먼저 배치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가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현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5월께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전전시켜놓자는 의미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방탄조끼 입은 용의자 김정남 독살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용의자 중 한명인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가운데)이 1일(현지시간) 재판장을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 세팡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의회선 압전하네?

66분간 중산층 부활·멕시코 국경 장벽 등 역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 한 상·하원 합동연설을 돌발적 언행 없이 차분하고 집착하게 진행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부활, 안전한 미국 등 주로 미 국내 이슈에 초점을 맞춰 66분간 연설했고, 수십 차례의 기립박수를 포함해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폐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에 이르러서는 야당의 짜늘한 반응에 마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개를 가로챘거나 헛웃음을 지었으며, 방청석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양분된 미국의 자화상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58분(동부시간) 하원 회의장에 기립 박수 속에 복도 좌우 의원들과 악수하며 입장했다.

그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소개를 받아 9시 3분, 미국 유대인 센터에 대한 테러 위협을 비판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국경 치안 및 범죄 강화,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마약 범죄 근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주요

대선 공약을 완수하겠다고 힘을 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가동해야 한다”며 중산층 부활에 힘을 쏟겠다고 하자,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팀 케인 상원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보였던 특유의 손동작이나 과도한 몸 움직임을 자제하며 차분하게 연설을 이어갔고, 연단 뒤 의장석에 앉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흡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연설 내내 민주당 의석은 냉랭하기만 했다.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아예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또 “워싱턴 정가의 오물을 빼겠다”고 했을 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는 붕괴했다”며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계획을 상당 시간을 할애해 설명하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앉은 채 여러 차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오른쪽)의 박수를 받으며 취임 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금리, 이달 내 인상 가능성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발언 이후 시장 트레이더들이 보는 미국 기준금리의 3월 인상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근거가 “훨씬 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최근 2개

월간의 지표는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고용 시장은 탄탄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다소 올라갔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번 주 들어 연준이 3월 14~15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택할 것이라고 점점 기대하고 있다.

시장은 오는 3일 재닛 옐런 의장의 연설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정남 독살 용의자 2명, 살인혐의 기소

김정남 독살 혐의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외국인 여성 용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1일 관할 세팡법원에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와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29)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장을 통해 이들이 지난 13일 오전 9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도피 중인 다른 용의자 4명과 함께 북한인 ‘김철’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가명이다. 김정남은 피살 당시 이들이 김철로 기재된 외교 여권을 갖고 있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마카오로 갈 예정이었던 김정남은 공항 출국장에서 아이샤와 흐엉에게 독극물 공격을 받은 뒤 공항 내 치료소를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두 여성과 북한 국적의 리정철(46) 등 3명의 용의자를 검거했고, 보건부는 김정남의 시신에서 검출된 독극물 분석 결과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정남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코미디 영상을 찍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

해은 흐엉은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아이샤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여성 용의자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형량과 관련,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측이 요청한 법정에서 심리 중인 사형에 관한 보도 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향후 재판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사 알람 고등법원으로 이관돼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공판 일정은 4월13일로 정해졌다.

또 다른 용의자인 리지현(33), 홍송학(34), 오종길(55), 리재남(57) 등 북한 국적자 4명은 범행 직후 평양으로 도피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으로 연루자로 지목한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44), 고려항공 직원 김옥일(37)은 북한대사관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중 리정철을 살인혐의로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나주,전원주택단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건너편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백운동 25분,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전원주택 허가 필,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매매 - 평당 8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3년안에 대박 납니다 !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